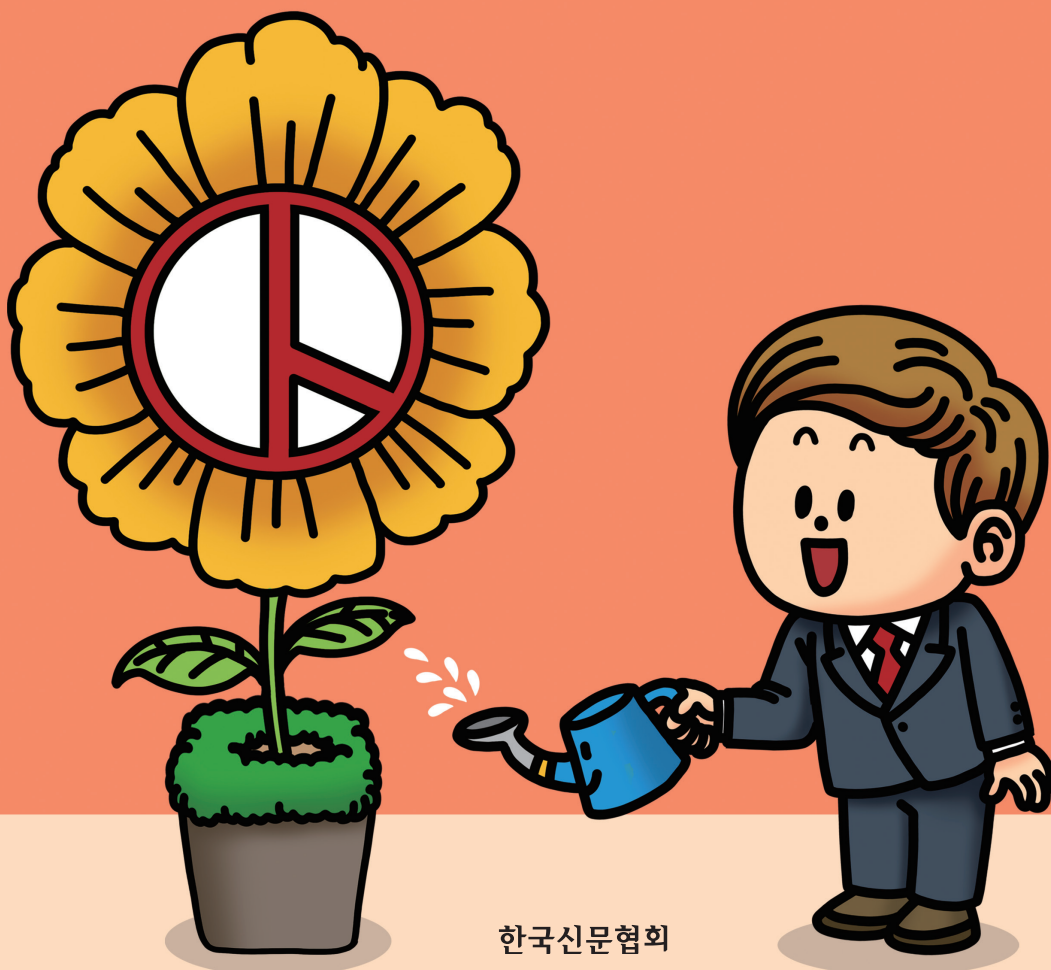


신문으로 배우는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2017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패스포트



신문으로 배우는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2017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패스포트



NIE 워크북

초등학생용

차례

- 03 ... 일러두기
- 04 ... 자기소개
- 05 ... 신문지면 소개
- 06 ... 활동메모

활동주제

- 08 ... 선거에는 어떤 원칙이 있나요?
- 10 ... '대선 용어'에 대해 알아보까요?
- 12 ... '역사적인 선거'의 의미는 뭘까요?
- 14 ... 이런 대통령을 찾습니다
- 16 ... 정치인들은 누구일까요?
- 18 ... 투표와 개표는 어떻게 할까요?
- 20 ...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고요?
- 22 ... 선거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 24 ... 나도 유권자입니다
- 26 ...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좋아요
- 28 ... 선거 포스터 속에 숨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 30 ... “한 표 부탁드립니다”
- 32 ... 누구를 뽑을까요?
- 34 ... 성숙한 선거 문화 만들어요
- 36 ... 다른 나라의 투표용지를 살펴볼까요?
- 39 ... VISA(확인서)

일러두기

‘선거 패스포트’ 사용법

- 🍌 ‘2017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패스포트’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 다양한 선거에 대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5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2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1~2017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어린이신문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필로 쓸 경우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 ‘나의 활동 메모’(6~7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자, 이제 신문으로 배우는
선거와 민주주의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 알림

‘2017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

학 교 •

학년 · 반 •

연락처 •

발급일 •

서명 •

활동 기간 •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패스포트 활동 수행 전에 알아두세요

신문은 다양한 지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면의 명칭은 신문사에 따라 다르지만, 독자가 신문을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기사도 그것이 생활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면에 소개될 수도 있지요. 신문을 참고하면 활동 과제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면

여러 분야의
주요기사

정치면

국내외 정치와
관련된 기사

해설면

기사에 관련된
심층 해설

국제면

나라 사이의 관계,
다른 나라의
기사

경제면

경제 활동에
관한 기사

오피니언면

사설, 칼럼,
독자투고

과학면

정보통신, 환경 등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

교육면

학교, 교육 정책
등에 관련된
내용

사람들면

유명 인물이나
단체에 관한
소식

지역면

신문이 배포되는
지방의 기사

사회면

사회의 각종 사건
관련 기사

스포츠면

운동경기,
운동선수 등에
관한 기사

문화면

각종 문화, 예술
관련 기사

연예·오락면

연예가 관련
기사

방송면

방송 프로그램 등

취업·창업면

취업과 창업
관련 기사

출판면

새로 나온 책
소개 등

건강면

질병, 병원,
의료 활동 등
관련 기사

여행·레저면

여행, 레저 활동
정보 등

광고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광고



나의 활동 메모

순번	날짜	활동 주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참 고

- ①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② 활동 주제는 12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③ 아래 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④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비워 둡니다.

한 문장 소감

확인



1

선거에는 어떤 원칙이 있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들이 주로 정치 활동을 합니다.



국민 모두 정치를 하는 것에 비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정치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장점

①

②

③

단점

①

②

③



우리나라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구분	글이나 그림으로 설명하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2

‘대선 용어’에 대해 알아보까요?



2017년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신문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낱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문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낱말들 중 내가 모르는 낱말을 5~10개 정도 찾아 아래에 적어보세요. (예: 후보, 유세, 여론조사 등)



낱말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위의 낱말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놀이를 해보세요.

놀이 방법

- ① 이면지나 A4 용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카드를 만듭니다.
 - ② 카드 위에 있는 선거 관련 낱말들을 한 장에 하나씩 적습니다.
 - ③ 처음에는 돌아가며 자기가 아는 낱말을 설명하고 설명한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만일 설명을 못한다면 “Pass(패스)”를 외치면 됩니다.
 - ④ 가장 많은 카드를 갖게 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 ▶ 모든 사람들이 낱말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모두가 이해가 되었다면 설명하는 사람을 정한 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 카드를 집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 위에 제시한 낱말 놀이의 결과를 적어보세요.

낱말놀이 참석자 :

1차 우승자

2차 우승자

3차 우승자



앞에 나오는 낱말을 5개 이상 이용하여 '오늘의 일기'를 써보세요.

2017년 _____ 월 _____ 일 날씨 _____

오늘의 기분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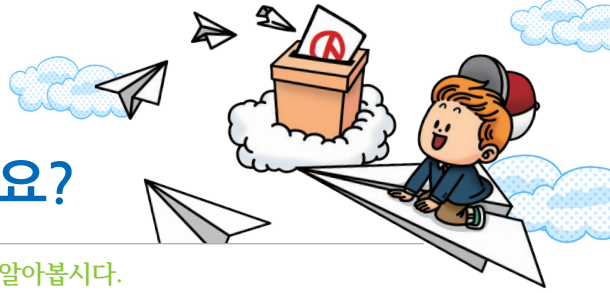
오늘의 주제 : _____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18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diary entry.



‘역사적인 선거’의 의미는 뭘까요?

국내외 각종 선거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남겼던 선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출처: 조선일보 2008년 11월 6일 1면

오바마, 첫 흑인대통령 당선... ‘역사의 新새벽’ 열어

선거인단 확보수 349대 163... 공화 매케인에 압도적 승리
유권자들 변화 열망... 美 정치 ‘마지막 인종의 벽’ 허물어
오바마 “부자·가난한 자, 공화·민주, 흑인·백인... 우리는 하나”

미국인은 변화를 선택했다. 4일 실시된 미국 4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Obama·47) 상원 의원이 압도적인 표 차로 공화당 존 매케인(McCain)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오바마 의원은 5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각 6일 01시30분) 현재 접전 지역이던 버지니아, 플로리다주 등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34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163표에 그친 공화당의 매케인 의원을 눌렀다. 오바마 의원은 전체 득표(개표 기준)에서도 약 6300만 표(63%)를 얻어 약 5600만 표(47%)를 얻은 매케인 후보에 앞섰다.

오바마는 미국의 역사 232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부시 행정부와 의 협조하에 금융위기 해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의원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그랜트파크에서 열린 당선 축하 집회에 나와 “미국에 변화가 왔다”고 일성(一聲)을 터뜨렸다. 그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날이 순간 우리가 이룬 것으로 인해 미국은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흑인·백인·히스패닉·아시아인·원주민이든 미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미국은 파란



4일 밤(현지시간) 미 시카고의 그랜드 파크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한 부부를 담은지 무무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회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버락 오바마 대 대통령 당선자와 부인 미셸, 부통령 당선자 조지프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과 조지프 바이든.

국가(blue state·민주당 상징)도 ‘빨간 국가(red state·공화당 상징)’도 아닌, 미합중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일리노이주출신의 에이브러햄 링컨(Lincoln)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빗대 “우리의 선거운동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승리의 공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

오바마 의원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맨해튼, 시카고 도심에서는 밤늦게까지 시민들이 환호하며 그의 승리와 새로운 미국의 시작을 반겼다. 오바마 의원은 이날 지난 2004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이 승리했던 버지니아, 아이오와주 등에서 승리하며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 위에 제시한 기사에서 ‘역사의 新(신)새벽’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선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아래에 정리해보세요.

신문 기사 붙이는 곳

주요 내용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



4

이런 대통령을 찾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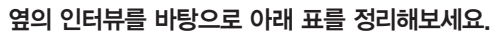
인터뷰 방법

- 먼저 인터뷰에 응할 가족이나 이웃을 찾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얻은 정보는 학습용으로만 쓰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은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을 합니다.
- 적어도 3명 이상을 인터뷰 합니다.
-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미리 생각해 만듭니다.
-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한 결과를 표에 정리합니다.
- 결과표를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또는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 중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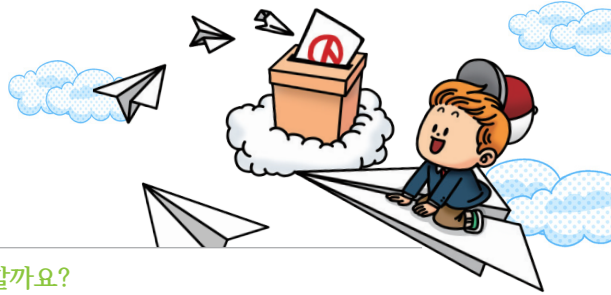
	존경하는 대통령	이유
가족 1		
가족 2		
가족 3		



인터뷰 한 내용을 어린이신문에 보낸다고 가정하고 ‘우리 가족은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써보세요.

정치인들은 누구일까요?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뽑힙니다. 이들은 선출된 다음, 무슨 일을 할까요?



출처: 대구일보 2016년 12월28일 17면

통상 선거 통해 공직진출...공익 위한 정책결정의 주역

직업의 세계

〈68〉 정치인

정치가(정치인)라는 말은 옛날부터 사용돼 왔지만 오늘날 누가 정치인인가 하는 물에는 골장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 지는 직업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시장, 군수 도 정치인이다. 지방의원들도 20세기 말 정치인으로 등장했다.

◆정치인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공직에 취임한다. 그렇다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모두 정치인이라 하기는 좀 그렇다. 농업협동조합장이나 노조위원장도 조합원들의 선거를 통해 취임하지만, 이들을 정치인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협이나 노조의 집단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무엇인가’는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보통 선거를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시민의 공익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공직자와 관련한 공직자가 되고자 활동하는 정당인이라 할 수 있다.

◆종류와 하는 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은 대통령, 국회의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시·도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군의원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 준수와 국가 보호, 평화적 통일과 국민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며 정부 수

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등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두 번할 수 없으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억1천 201만8천 원의 연봉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조약 체결·비준을 비롯한 각종 중요 사안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고 국정감사와 조사를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4년 임기제로 연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101만4천 원의 수당, 120만 원의 임박 활동비 등을 받으며 그 이외에 회기 중 특별활동비, 임박 및 정책개발비, 각종 여비 등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 1명이 총 7명(45급 각 2명, 67.9급 각 1명)을 보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급수에 해당하는 월급을 매달 국가로부터 받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의 단체장(시장, 도지사)과 시·군·자치구 등의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며 지방자치 행정을 지휘·감독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하고 산하 공무원을 임명하고 교육할 권한을 갖는다. 그런



중앙행정기관장 지휘 대통령
법률·예산안 의결 국회의원
지방자치 이끄는 지방의원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당인



데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은 삼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4년 임기로 3번 연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1억2천 86만8천 원, 기타 시도지사는 1억 1천73만3천 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크기에 따라 8천778만3천~1억266만6천 원의 연봉을 받는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한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지방세와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매년 2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60일 이상 거주하면 지방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문정희 기자
도움말 청소년라이프디자인 대표 윤세환



옆의 신문기사는 정치인의 직업을 다룬 글입니다.

아래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적어보세요.

 대통령		임 기
		출마 가능한 나이
하는 일		
출마 자격		

 국회의원		임 기
		출마 가능한 나이
하는 일		
출마 자격		

 지방자치단체장		임 기
		출마 가능한 나이
하는 일		
출마 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투표와 개표는 어떻게 할까요?



투표권은 민주시민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개표는 투표를 마친 다음, 누가 당선되었는지 투표용지 수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자료 1〉

출처: 한겨레 2012년 12월19일 4면

투표소 547곳 바뀌어 확인 필요...‘투표 독려’ 인증샷 가능

투·개표 절차와 유의사항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밤 11시계가 되어야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18일 선거안내 자료를 내어 “70% 전후로 예상되는 투표율과 후보간 지지율 격차 등을 고려하면 당락이 확실해지는 시간은 밤 11시와 12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표율이 63%에 불과했던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정동영’ 두 후보간 격차도 크게 벌어져 밤 8시30분께 당선자가 확실해졌다.

반면 투표율이 70.8%였던 2002년 대선에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여 10시30분께 당락이 정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밤 11시보다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초반방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 2002년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식 기관인 선관위의 보수적 전망치이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으면 윤

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투표 마감시간인 저녁 6시 정각에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지만, 방송사를 역시 ‘○○ 후보 당선’이라는 식의 확정적 보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252곳의 개표소에서 실시간으로 집계 되는 개표 결과는 새벽 2시에 잠정 완료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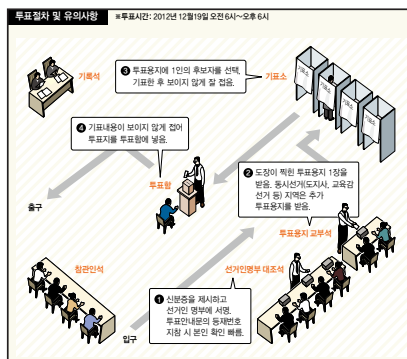
투표소 4% 장소 변경...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투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를 하는 이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부재자투표 신청을 했다가 투표하지 못한 이들도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050만7842명으로, 2007년 대선 때의 3765만3518명에 비해 285만4324명이 늘었다. 투표소도 1만3542곳으로 지난 4·11 총선 때의 1만3470곳보다 72곳이 늘었다. 총선 때와 비교해 장소가 바뀐 투표소는 547곳으로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교시설 투표소는 한 곳도 없다.

투표장소는 각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나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인터넷 포털(다음·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다.

선관위는 또 16일 이경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 투표용지에는 기호 3번 이경희의 후보가 인쇄돼 있어, 모든 투표소의 눈에 띄는 장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을 붙여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투표 독려, 인증샷 자유롭게... 지난 총선 때부터 누구나 선거당일 투표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총선 전엔 투표일마



다 ‘인증샷’ 허용 범위 등이 논란이 됐으나,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다. 원칙은 자유롭게 투표 독려 활동은 하되,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된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독려 활동은 금지되며, 인증샷에도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찍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배경 화면이나 손가락 표시 등이 담기면 안 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선거

캠프 관계자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도 자유롭게 인증샷을 올리거나 투표 독려활동을 할 수 있다. 인증샷을 찍을 때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투표용지에 기표가 됐거나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자료 2〉

출처: 서울신문 2017년 1월21일 1면

‘엄지’ ‘V’ 등 투표 인증샷 마음껏 올리세요

기호 연상 허용·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 당일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가능

앞으로 선거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투표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 등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포즈도 가능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운동을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9건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도인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김민석 기자 shito@seoul.co.kr



〈자료 1〉을 읽고 투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 ①
- ②
- ③
- ④



〈자료 2〉 기사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기 위해 허용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함을 열고 득표수를 계산해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이를 ‘개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표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하여 아래 빈 란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세요.

투표함 접수



개함



유·무효표 집계



위원 검열 및 위원장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해보세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이 가운데 개표과정을 알려면 다음의 순서로 방문하세요.

- ① 홈페이지 화면 맨 위의 배너 ‘선남선녀(미래유권자)’ 클릭
- ② 선거아카데미 클릭
- ③ 선거가 궁금해 클릭
- ④ 제목 가운데 ‘궁금했던 개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7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고요?



선거에 나가려면 돈(선거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돈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선거사무소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등 선거를 돕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 사진의 작성비용
- 어깨띠, 현수막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을 제작하고 게시하는 데 드는 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연설·대담용 차량 대여,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설치비, 연설·대담용 차량의 주차료·연료비·유료통행료, 로고송 제작비 등)
-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 인터넷 광고에 소요된 비용
-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후보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자금을 잘못 쓰는 경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보도한 기사를 찾아보세요.

신문 기사 붙이는 곳

▶ 어떤 문제를 다룬 기사인가요?

▶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거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는 국가적인 큰 행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2017년 1월19일 14면

선관위, 대선 앞두고 ‘가짜 뉴스와의 전쟁’

SNS업체와 함께 ‘방어벽’ 구축

을 상반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가짜 뉴스가 국내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짜 뉴스는 허위 사실을 진짜

인 양 정리한 기사를 뜻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 차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짜 뉴스는 인터넷 매체 같은 사이트에 올라 있고 출처도 존재한다. 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국내외 SNS 업체와 함께 ‘가짜 뉴스 방어벽’을 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페이스북의 한국 법인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와 만나 공동 대응

에 합의했다. 또 트위터, 구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과도 공조를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손쉽게 만들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 등 도구들의 확산도 막고 있다. 이달 초 가짜 뉴스 제작 앱인 ‘페이스뉴스’ 제작자를 접촉해 앱을 자진 삭제하도록 했다. 가짜 뉴스 제작 사이트인 ‘데일리파닥’과도 선거운동 기간에 기능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의 신문기사에 나온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Empty box for writing the answe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신문에서 기사를 찾아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찾아보세요.



다음의 사람이나 기관은 선거에 어떤 도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봅시다.

여론조사기관	
선거자원봉사자	



9

나도 유권자입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당선되면 지키겠다고 내세우는 것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 공약들 중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공약이나 흥미로운 공약을 1가지 골라보세요.
내가 선택한 공약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적어보세요.

내가 찾은 공약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친구들은 옆의 의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친구 이름 : _____

친구 이름 : _____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을 골라 그 후보 선거사무소에
자신의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보세요.

제목 : _____

본문 : _____





선거에 앞서 공약은 후보자의 약속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만 되려고 거짓 또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앞세우는 후보자는 뽑으면 안 되겠지요.

출처: 동아일보 2011년 2월22일 C19면

‘친구배려 - 공약차별화 - 톡톡튀는 연설’로 반장되자

새 학년을 앞둔 초등학생 사이에서 '반장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입학사정관제가 국제중, 특목고 입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리더십을 한눈에 증명할 수 있는 반장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선 반장선거 경쟁률이 10~15 대 1에 이를 정도다. 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선 남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와 독특한 아이디어가 뒷받침돼야 한다. 반장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3대 요소는 △배려 깊은 행동 △독특한 공약 △재미있는 연설이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반장선거에 도전하는 초등생이 늘고 있다. 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친구를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차별화된 공약, 재미있는 연설을 준비해야 한다. 평대원 기자 yoon72@donga.com

지우개 빌려주고, 청소 도와주고... 유재석처럼 행동하라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진행자 유재석이 선보인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았다. 스카프를 코스를 오르는 미션이 주어졌을 때 유 씨는 뒤처진 멤버들을 하나 하나 챙겼다. 떨어질까 두려워 공포에 질린 멤버를 돕기 위해 되돌아 바닥으로 내려가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원하는 반장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반 친구들을 챙겨주고 술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친구들의 눈에 익은 학생은 반장선거에서 단연된 확률이 높다. 작은 배

려에서부터 시작한다.

수업시간에 지우개를 잘라 빌려주거나 노트 필기를 보여주는 사소한 배려부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 구역 담당하기 △수업시간 중 심부름은 손 들고 나서서 하기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친구들의 지지를 한눈에 받으면 반장으로 추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서울 영훈초에 다니는 자녀를 둔 노원정 씨(40·서울 강북구)는 "상급생이 될수록 정직하고 품성이 바른 모범적인 학생이 반장이 되는 것을 반 아이들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2학년년부터 줄곧 반장을 해왔고 지난해

전교 부회장을 지낸 경기 신안초 예비 6학년 허하늘 군(12)은 "친구들이 어려울 때는 먼저 도와주고 힘든 일에는 앞장서서 나서 보니 저절로 학급 친구들과 친해졌던 게 반장, 전교부회장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매달 말 율요수 회의를 해보자!"... 차별화된 공약을 만들라

과열된 반장선거를 막기 위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1분, 3분 등 정해진 연설시간 동안 이야기하기 △공약을 정리한 포스터 만들어오기 △반장으로 뽑아 달라'는 부탁하지 않기 같은 엄격한 조건이나 제약이 생겨난다. 이런 반장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학급 학생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청심국제중에 자녀를 입학시킨 이윤정 씨(40·서울 금천구)는 자녀를 꾸준히 반장선거에서 당선시켰다. 그는 "아이들도 독창적이고 타당한 공약을 갖춘 반장을 뽑는다"면서 "반장선거 직전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공약을 생각해가 하는 한편 공약을 A4용지에 깔끔히 적어서 외우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공약은 자세하고 구체적인수록 신뢰감을 준다. '화목하고 가족 같은 반을 만들겠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학생 모두가 한 달에 한 번 1000원 이하의 과자를 사와 과자파티를 열겠다 △우리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티타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겠다 △보다가 싫증난 책을 교환하는 '책 교환시장'을 만들겠다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것이 좋다. 반장, 전교회장을 목표로 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캠프를 진행하는 인성스쿨 이병장 대표의 "카리스마를 강조한 강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학급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생각한 공약이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거수경례하며 '충성'... 웃음을 주는 연설을 하라

1학기 반장과 2학기 반장은 색깔이 크게 다르다. 2학기 반장에는 6개월의 학교생활을 함께 경험하면서 모범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학생들이 주로 뽑힌다. 반면 새 학기가 시작된 뒤 1, 2주일 만에 이뤄지는 1학기 반장선거에서는 초반의 적극적인 이미지로 좌우된다. 활발하고 성격 좋은 학생들이 대거 반장으로 선출되곤 하는 것.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연설과 함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면 학생들의 관심을 한눈에 끌 수 있다.

지난해 반장을 했던 서울 중화초 예비 5학년 지태우 군(11)은 반장선거에서 "충성"이라고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또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며 "저를 꼭박 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런 행동덕분인지 그는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지 군은 "재미있는 행동을 하면 친구들이 웃으면서 단번에 내게 집중했다"며 웃었다. 반장선거에서 연설을 할 때는 학생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서두에 던진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웃음을 유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홍소핑을 패러디한 '반장 홍소핑'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유행하는 광고의 한 장면을 따라하며 '팔팔팔 쏟아지는 우리 반 친구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겠다' '우리 반을 5학년 모든 반 중의 티오피(TOP)로 만들겠다' 같은 재치 있는 문구를 사용해도 좋다.

서울 강남구에서 스피치학원을 운영하는 양인석 원장은 "자신의 장점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율동, 노래, 마술 등을 접목해 연설하면 좋다"면서 "유행하는 영화, 드라마, 광고를 패러디한 재미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명진 기자 ymj87@donga.com



옆의 신문기사를 읽고 전교회장 또는 반장으로서 적합한 친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찾아보세요.

1	
2	
3	



전교회장 또는 반장 선거에서 '이런 공약은 싫다'는 것이 있다면 1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떡볶이를 사주며 자신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후보'를 들 수 있습니다.

싫은 공약	
-------	--

이유	
----	--



11



선거 포스터 속에 숨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선거 포스터는 후보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선거포스터'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알아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난 대선(1~18대)에 누가 출마했는지 살펴보고 아래 활동을 해보세요.

▶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통령 선거는 어느 선거인가요? (제 대 선거)

▶ 이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는 누구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 정리해보세요. 칸이 모자라면 더 만들어 사용하세요.

기호	정당	이름	경력

※ 지난 대선에 누가 출마했는지 알아보는 방법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② 첫 화면에서 '역대 선거'를 클릭합니다.
- ③ 이어 후보자, 다음으로 '선거유형'에서 '대통령선거'를 클릭한 후 아래에 몇 대 대통령선거를 조사하고 싶은지 선택하면 후보자 명부를 볼 수 있습니다. (1대부터 18대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조사했던 후보들의 포스터를 찾아본 후 가장 관심 있거나 흥미로운 것을 골라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 포스터에 담긴 글귀

후보자 이름		
가장 인상적인 문장		
문장을 읽은 여러분의 생각		



12

“한 표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신문이나 벽보, 포스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자신을 알릴 때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과 구호가 효과적입니다.



내가 만일 전교회장 또는 반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나만의 독특한 공약’ 한가지를 친구들에게 발표해볼까요.

나의 공약	
이유	



우리 학교에서도 올해 전교회장 또는 반장 선거를 했지요.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응원이나 격려를 해 본 적이 있었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만일 없어도 응원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올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 한 가지를
아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적어보세요.



후보자 : _____





“기호 ○번 누구입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를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니 초등학교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는 어른들의 선거 못지않게 열기가 뜨겁군요.

출처: 전북도민일보 2016년 3월17일 7면

“저를 뽑아주신다면...” 초등학교에도 ‘선거 열풍’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학기를 맞은 도내 초등학교에서도 ‘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16일 전교학생회 임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기린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각 후보들의 구호를 외치며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 기자

새학기 맞아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
후보 학생들 등굣길·점심시간 이용
실현가능 공약 내세우며 지지 호소
정치인 못지않은 열기...축제로 즐겨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초등학교에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새 학기를 맞아 전주지역 초등학교에서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총선을 방불케 하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임원 선거에 나선 학생들은 아침 등굣길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호 1번, 2번, 3번 회장 후보 학생과 선거 운동원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공약을 담은 피켓을 들고 등굣길에 나서고 있다. 또 방송 스피커와 교실 TV를 통해 소견 발표를 진행,

친구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찾은 전주 기린초등학교에선 3명이 출마해 회장 선거가 펼쳐졌다. 선거일인 이날을 제외하고 전날까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다.

후보자들의 기성 정치인 못지않은 치열한 공약경쟁까지 벌어졌지만 선심성 공약은 남발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특유의 순수함이 묻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거철의 ‘괴열·혼탁’과 차별된 모습이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초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 분위기는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공약도 ‘헛바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쓰레기 줄이는데 솔선수범 하겠다’, ‘친

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회장이 되겠다’ 등 학교를 위해 나름 고민한 흔적도 엿보였다.

전주기린초등학교 학생회장에게 지원한 한재현 학생은 “친구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후보들도 솔직하고 순수한 답변이 이어졌다. 회장이라는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며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들이 주된 의견이었다.

선거를 관리하는 교사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과 소신이 담긴 것들이 많다”며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선거문화를 배

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린초등학교 이외에도 전주 지역 대부분 학교가 이번주 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 유세 열기로 뜨거운 상황이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선동운동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막고 ‘치맛바람’ 등 학교 밖 선거운동을 방지하고자 선거기간도 3일로 줄이기도 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공정하고 편리한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을 선관위에 신청한 학교도 있었지만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 반출이 어려워 다음 학기로 미루게 됐다. 아울러 금요일인 18일에는 송천초, 여울초, 우림초, 온빛초, 서일초 등 많은 학교에서 선거가 진행돼 그야말로 ‘슈퍼금요일’이 펼쳐질 예정이다.

설정록 기자



옆의 신문기사는 초등학교 임원 선거를 다룬 글입니다. 기사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적어보세요.

기사 제목	
기사 읽고 알게 된 정보나 사실	①
	②



내가 만일 전교회장 또는 반장 선거에 도전한다면 나의 공약이나 특징을 잘 나타낼
구호(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 한 가지를 만들어보세요.

나의 구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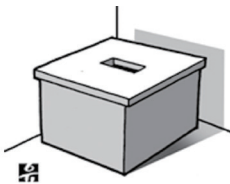


아래 신문기사를 읽고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출처: 세계일보 2016년 7월 1일

[김기자의 소설특독]

“투표도 안하고 말만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



호주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선거 참여를 남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 호주달러(1만 7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4년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

는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이를 국민의 의무로 보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게 해주고 의회는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들로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선거 의제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나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고 벌금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재판에 회부돼 최대 170 호주달러(약 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소송비가 추가되는 한편 이 범원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그리스·브라질·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이다.

이같은 소식에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국내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일정 정도 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A씨는 “민주주의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의식도 없이 투표일이 휴일인 것처럼 놀러 다니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게 자랑이라도 되는 듯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싫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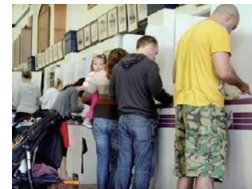
B씨는 “과거 유혈 투쟁으로 선거권 가져오면 무엇하느냐”면서 “놀러 가기 바빠서 투표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C씨는 “뺨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 안한

다는 핑계 대고 놀러 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권 칸도 만들어 거기에도 도장 찍게 하고, 전 국민 투표를 반드시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D씨도 “우리도 의무로 투표하자”면서 “기권하고 싶은 사람은 기권(란)에 도장 찍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옆의 신문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세요.

신문기사 제목			
날짜		출처	
기사 주요 내용			
문제 해결 방법			



다른 나라의 투표용지를 살펴볼까요?

투표용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재미있거나 독특한 선거제도나 선거문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중앙일보 2016년 3월19일 13면

아일랜드, 기표란 옆에 후보 사진 ... 일본은 찍을 사람 이름 써야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민 주주의 가이드북'이다. 여행자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처럼 투표용지는 국민이 올바르게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

각 나라의 투표용지를 살펴보면 그 사회의 발전 수준과 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다. 문맹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텍스트 대신 그림을 넣는다. 그러가 하면 투표용지 없이 전자식 투표를 하는 나라도 있다. 투표용지는 제각각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은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무효표를 최대한 방지하려는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투표용지 변천사=우리나라는 투표용지에 정당과 후보자 이름 외에 별 다른색상이나 심벌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런 틀 안에서 시대별로 조금씩 형태가 변해왔다. 1960년 실시된 제5회 국회의원 선거(민의원) 투표용지는 아라비아숫자 대신 막대로 기호 표시를 했다. 일제시대를 살아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민이 많은 시기였다. 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부터 기호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됐다. 아쉬운 건 이 시기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아라비아숫자 투표용지는 71년 5월 25일 치러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다. 93년 제14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가로쓰기·세로 정렬이 시작됐고 이름난에 한자가 사라졌다.

아프리카=아프리카 국가들은 각종 심벌을 활용한 투표용지를 많이 쓴다. 다양한 부족 집단이 존재하는 데다 부족별로 언어도 제각각인 만큼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데는 텍스트보다 심벌이 효율적이다. 탄자니아는 큼직한 두 인물 사진 밑에 각각 도끼와 집 모양의 심벌을 넣었다. 토고의 투표용지에는 떠오르는 태양, 닭, 옥수수 등 심벌을 활용한 각 정당의 로고

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다. 에티오피아의 투표용지에는 말·닭·낙타 등의 동물이나 시계·꽃봉과 같은 사물 기호가 가득하다. 다양한 부족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북한의 투표용지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하다. 북한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이 찍힌 '선거표'를 받아서 찬성하는 경우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는 경우엔 이름에 선을 그은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도 인민회의의 대의원, 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투표용지가 따로 있고 크기와 색깔이 다르다.

일본은 기명투표 방식을 쓰고 있어 후보자 이름을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써야 한다. 물론 기표소 안에 후보자 이름이 적힌 안내문이 있다고 한다. 오·탈자 또는 필요 없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무효표가 된다. 네덜은 아시아 국가지만 아프리카의 투표용지와 비슷한 형태다. 가장 상위에 있는 농기구와 나무는 각각 1당인 급진네덜란드공산당(CPN-Maoist), 중도정치를 표방하는 네덜란드화당(VVD)의 상징물이다.

남미=베네수엘라 투표용지가 없다. 투표용지 대신 투표소에 설치한 전자판에 후보자를 안내하는 문구와 사진을 띄워준다.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자를 누르면 오른쪽 분홍색 동그라미에 불이 들어온다. 스크린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투표가 종료된다. 전원이 연결된 장치들로 외부 해킹 우려는 거의 없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투표장광판을 자세히 보면 같은 후보자 얼굴이 여러 번 보인다. 하지만 정당명은 각기 다르다. 이는 정당끼리 연대해서 한 후보자를 선출한 경우라고 한다.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투표용지도 화려한 색상으로 제작한다.

유럽=아일랜드는 후보자 사진을 기표란 바로 옆에 넣었다. 기표할 때 유권자

들이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르투갈은 투표용지에 정당의 전체 이름, 약칭, 심벌을 다 표시했다. 그럼에도 흑백으로 정갈하게 디자인했다. 기표란은 네모 모양으로 명확히 분리해서 무효표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했다. 프랑스는 유권자의 기호까지 고려한 투표용지가 이색적이다. 후보자가 네명이려면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이름별로 총 네 종류를 만든다. 후보자 이름을 제각각 다른 글씨체와 크기로 표시하는 식이다. 투표방법은 더 재미있다.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이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투표용지를 선택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봉투 한 장만 수령했음을 확인 받고 그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는다. 스페인·스웨덴·스위스·아르헨티나도 이런 방식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따로 있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왼쪽에는 지역구, 오른쪽에는 비례대표를 동시에 기표하도록 만들었다. 동그라미 안에 X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기표 하라는 안내가 되어 있다.



1 베네수엘라 투표용지 대선 전자판의 인물을 보고 전자식 투표를 한다. 2 아일랜드는 기표란 옆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다. 3 탄자니아는 인물사진과 함께 도끼와 집 모양의 정당 상징물을 넣었다. 4 북한의 투표용지엔 후보 이름이 있고 반대할 경우 이름에 선을 긋는다. 5 일본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써야 한다.



나라마다 투표용지가 다른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투표용지에 대한 기사를 찾아 주요 특징을 설명해보세요.

신문 기사 붙이는 곳

▶ 주요특징



VISA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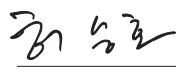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17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17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사이트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

 ChosunMedia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

한겨레
hani.co.kr

<http://www.hani.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江原日報**

<http://www.kwnews.co.kr>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

 **경북매일신문**

<http://www.kbmaeil.com>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光州日報**

<http://www.kwangju.co.kr>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

 **대전일보**

<http://www.daejeonilbo.com>

 **每日新聞**

<http://www.imaeil.com>

 **부산일보**

<http://www.busan.com>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울산매일**

<http://www.iusm.co.kr>

 **全羅日報**

<http://www.jeollailbo.com>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全北日報**

<http://www.jjan.kr>

제주新보

<http://www.jejunews.com>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Blank page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발행일 | 2017년 4월 20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 최상희 (경향신문 편집국 차장)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심옥령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초·중등 교장)

발행인 | 이병규

펴낸곳 | 한국신문협회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층

전화 | 733-2251~2

팩스 | 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orea Press Foundation